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보 도 자 료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담당자	• 배포 : 2019. 09. 27(금) • 철도실 정시교 실장/하민기 책임연구원/김은지 연구원 • ☎ 031-389-6470/031-389-472/031-389-6374 • skjung@kaia.re.kr/tops117@kaia.re.kr/happejk@kaia.re.kr	
보도일시	• 즉시 보도해 주십시오.	

국토교통진흥원, “부산시민 트램 체험 후 친환경성, 교통약자 배려형에 만족!”

- ‘무가선 저상트램, 부산시민들과 함께 타보기 행사(총6차) 1차 개최, 시민의견 수렴’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 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은 지난 9월 25일 부산남구 지역주민 및 KAIA 시민참여혁신단 등 50여명과 함께 “무가선 저상트램, 부산시민들과 함께 타보기” 행사 1차(총6차)를 추진하였다.
- 본 행사는 국토교통진흥원의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사업(‘17.9~’21.12, 철도기술연구원 주관) 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 ① 트램에 대한 연구진의 설명·정보 제공 ② 트램 시승체험을 통한 참가자 간 의견교환 및 질의응답 ③ 의견수렴(설문조사)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 설문조사 결과, 이번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의 참여 동기는 ‘트램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높았고, ‘트램을 좋아해서’, ‘트램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내려고’ 등이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들이 트램에 관심이 높다는 점과 함께 아직까지 홍보 노력이 더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시민들이 트램 시승 후 이용 만족도는 97%로 높았고, 이유로는 ‘배터리를 이용하여 미세먼지와 매연 배출이 적다’, ‘잔디 노면 등 도시 미관 개선과 재생에 도움’, ‘유모차나 교통약자가 승하차 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 또한 이번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81%가 만족하였고, 참가자 중 한 시민은 “다양한 참가자들과의 시승을 하면서 의견 교류를 통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교통 약자의 어려움도 인지할 수 있게 되었고, 트램이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진흥원 관계자는 “본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목적은 트램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실증노선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5회를 더 추진하여 국내 1호 부산트램(오륙도선)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가선 저상 트램 릴레이 행사 일정>

회차	날짜	회차	날짜	회차	날짜
2	10/15(화)	3	10/29(화)	4	11/12(화)
5	11/26(화)	6	12/10(화)		

* 본 행사는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참가방법은 부산남구청 홈페이지 (<https://www.bsnamgu.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가선 저상 트램 시승 후 단체 사진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지를 작성 중인 시민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www.kaia.re.kr)

국토교통부 산하 유일한 국가 R&D사업 전문기관으로서 4,822억 원('19년 기준)의 R&D 예산을 집행·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건설기술 연구사업, 플랜트연구사업, 도시건축연구사업,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교통물류연구사업, 철도기술연구 사업,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등), 건설·교통신기술 인증사업 및 기술가치평가 사업이 있다.